

요 약

1. 한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였지만 1962년부터 실시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로 인해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OECD/DAC 회원국이 되어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공적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되었다.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국가가 불과 4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성공사례다.

2. 이와 같은 성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있다. 1970년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인프라 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농촌 빈곤을 해소시키고 농촌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한 언론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50년 역사에서 우리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1위로 꼽혔다. 일부 학자들이 새마을운동을 유신 독재의 잔재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추진한 국민동원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새마을운동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50년사에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업적으로 기억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3. 국내에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UN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는 2000년도에 개최된 제57차 총회에서 지역 내 국가에서 빈곤을 성공적으로 탈피한 농촌개발 모델을 지역 내 국가에 접목하여 빈곤을 해소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그 성공 모델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채택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서 빈곤 탈피를 위한 종합적인 농

촌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4. 한국 정부는 2011년도에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WFP)과 MOU를 체결하고 세계의 재난지역 및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UNDP와 OECD는 한국 정부와 협력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빈곤탈피와 농촌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5. 국제기구 외에도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새마을운동을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베트남에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2년간 두 농촌지역에 30만달러를 투입하여 추진한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이었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 사업을 베트남 농촌개발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하고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의한 베트남형 새마을운동을 2006년부터 5개년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이를 발전시켜 신농촌건설을 위한 국가 개발목표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 NTP)으로 추진하고 있다.

6.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원조사업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요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왜 한국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들이 새마을운동에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고질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의 한국과 같이 국가재정이 매우 빈약한 국가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농촌발전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새마을운동이 2000년도에 UN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7. 2011년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와 개발도상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국가 ODA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라오스, 미얀마, 르완다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국제 새마을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9개국으로부터 외국인을 초청하여 새마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수원국 현지에서 시범마을을 육성해 왔다. 경상북도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 2개국과 아프리카 4개국 15개 마을에 시범마을을 육성해 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의 개발 목표 설정과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 추진 내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새마을운동이 ODA 사업으로 정착하는데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8. 2013년에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농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ODA 사업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르완다에 국가 단위의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추진해야 하는 새마을운동은 그 추진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새마을운동을 ODA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 새마을운동 표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9. 이 연구에서 구축할 국제 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 모형은 농촌개발을 주 목적으로 추진했던 1970년대에 한국에서 시행했던 농촌 새마을운동 사업(Rural Saemaul Undong project)을 모델로 하며 이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새마을운동도 1970년대에 농촌개발에 초점을 두어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다.

10.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모형이란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한 논리적 구조로 개념화하여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 틀로 구성한 동형모형(Iso-morphic)을 의미한다. 동형모형은 새마을운동이라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해부학적 기법으로 그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단순하게 개념화 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각 부분별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새마을운동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논리적 구조의 틀(logical framework)이 된다. 따라서 ODA 사업 표준 모형은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한 지역사회 분석에서

부터 사업을 종료하고 성과를 측정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적 틀(logframe)이다.

11. 국제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대한 분석방법과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사업 대상지의 현황과 여건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 발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 사업 개발지구 주민들의 개발수요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파악된 개발수요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 새마을운동 사업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세부 분야별 사업목표와 마을의 총괄적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 분야별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며 분야별 사업은 어떻게 종합해야 하는가?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수립된 사업계획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승인되어야 하는가?
- 사업의 집행은 어떠한 절차를 따라 해야 하는가?
- 사업의 집행 결과 성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12. 새마을운동을 ODA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알리는 국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정책 담당자들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공유한 후에 1단계 전략으로 경제성장과 농촌개발 분야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새마을운동을 체험하도록 하고 2단계 전략으로 마을단위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그 결과의 확산을 시도한 다음에 3단계 전략으로 중앙정책과 연계하여 국가 단위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13. 농업분야의 콘텐츠로 작물재배, 채소 및 과수재배, 농산물 유통, 수확 후 관리기술, 상업화영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종자개량과 우량종자 공급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비, 병충해 방제 등 선진된 재배기술 도입, 개량된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지기반 조성, 농자재 투입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이 필수적이다.

농민들이 농업생산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영농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품목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된 농산물의 정당한 가격 수취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정비, 중간 상인들의 횡포를 배제할 수 있는 유통 경로의 효율화, 유통 수단의 근대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유통과정에서 농민들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로 구성된 농산물 유통조직이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개발은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식량안보가 우선순위를 지니지만 개별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개발과 인프라 개선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식량이 부족한 국가의 농업개발은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식량생산이 국민 수요를 충족하는 국가에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품목 개발과 부가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농업개발이 중요하게 된다.

14. 축산업은 작물 이외에 농가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농가

소득원의 하나로 소, 돼지, 닭 등 조류, 산양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유한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고, 가난한 농가들은 돼지나 염소, 닭, 오리 등을 구입하여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는 식량부족으로 가축에게 필요한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고 사양관리 기술도 낙후 되어 있어 가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역기술이 낙후 되어 질병에 의한 가축 폐사가 빈번하다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안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개발도상 국가의 농가들은 소나 돼지, 산양 등 가축을 구입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한다. 그러나 가난한 소농들은 가축 구입비용과 사료 구입비용이 부족해서 축산업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양관리 기술의 낙후, 질병예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가축 사육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15.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림 파괴는 대부분 임산물을 연료로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파괴된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외에 화목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는 대부분 농촌 에너지로 임산물을 사용하거나 벼짚 같은 농산 부산물을 사용한다.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중요한 에너지는 임산물과 축분이다. 그 것도 부족한 지역에서는 풀을 베어 말린 것을 취사 연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식목과 함께 산림을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화목 사용량을 줄이고 바이오 가스(biogas),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확대되는 토양 침식과 무분별한 산림 벌채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이 요구된다. 산림녹화 정책은 식목과 산림보호 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도 한국의 산림녹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식목일을 지정하고 매년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지만 심은 나무를 보존하는 산림녹화 정책이 미약해서 식재한 나무는 곧 벌채되고

다시 황무지로 환원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6. 개발도상 국가에서 어업은 영세한 주민들에게 생계수단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다. 양식어업은 강과 바다, 호수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사료의 과다 투입에서 오는 환경오염, 한 장소에서 계속된 양식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고기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양식어업에서는 양식기술의 보급과 함께 양식장의 환경개선, 질병예방, 수산물의 가공, 저장시설과 이와 관련된 기술의 보급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어촌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개발도상국의 어촌은 물고기를 잡는 배나 기구가 전근대적이고 잡은 고기를 저장하는 시설과 기술이 낮아 어업에 의한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촌은 가난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촌의 과제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어업 시설 현대화, 특히 양어 및 양식기술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식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있다.

어촌은 공간구조상 물고기를 잡는 어장과 잡은 물고기를 수납하는 부두와 작업장, 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과 인프라, 공공시설 즉, 학교, 보건소, 은행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다와 연한 어촌은 해일이나 쓰나미, 태풍 등의 피해를 입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마을과 어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구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설 중에는 바람을 막아 주는 방풍림(wind breaking forestry), 방파제, 선착장 등이 있다. 따라서 어촌개발에서는 어장 개발과 시설의 현대화, 어촌 보호 시설, 주거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기능 보강 등이 주요 이슈가 된다.

17. 농촌지역의 소규모 농외사업(small non-farm business)은 농촌지역에서 농업 이외에 식품가공이나 소규모 제조업, 가공업, 소규모 판매업,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노동의 질이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낮아 제품이 생산된다고 해도 적당한 판매처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종사하는 인력의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생

산된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며 적절한 판매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사 인력의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농외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 종사 인력의 교육 및 기술 수준, 교육훈련이 필요한 분야의 확인, 기술 훈련 이후 종사할 분야 등에 대한 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외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사인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 수준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 유기농 농산물 생산계획을 세울 경우 시장에서 유기농산물과 기타 농산물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아 농가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유기농산물 생산계획은 실패하게 된다.

18. 농촌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농가들이 공식적으로 은행 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따라서 공식적인 금융지원 창구 이외에 다양한 여러 종류의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금융의 설치와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그러나 개발도상 국가에서 소액금융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액금융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한번 지원하면 그만인지 아니면 원리금을 회수하여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이동식 금융(roving credit)을 지원할 것인지? 이자율은 얼마로 하며 원리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보를 설정하도록 할 것인지, 상호 보증형식으로 대출을 해 줄 것인지, 대출금은 어디에 쓰도록 할 것인지? 등등... 소액금융을 농가에 지원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대출금 규모, 대출 이자, 대출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19. 농촌인프라는 농업생산성 인프라와 농촌생활환경 인프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농업생산성 인프라는 농업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촌용수, 수리시설, 경지정리 및 농촌도로 등이고 농촌생활환경 인프라는 상하수

도, 문화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주거환경 개선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을 빈곤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영농의 편의성 제고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량한 농업생산기반은 비옥한 토지와 충분한 관개용수 공급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이용하여 농지의 범용화를 도모하고 여기에 농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한 농경지를 규격화하여 정리하고 관개수로와 배수로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기계화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와 농도개발은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매우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개도국의 농촌개발 사업은 농촌도로 건설, 수리시설 개선, 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교육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역시 도로 건설과 수리시설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리시설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물로 인한 재배작물의 제약 조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주요 인프라시설 개발 사업은 계획, 조사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농촌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하에 개발계획 수립과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0. 수렵채취시대(hunting & gathering society)의 인류에게는 주택의 용도가 인간의 신체적 안전을 위한 은신처(shelter)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농경사회(agrarian society)로 접어들면서 주택은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과 저장, 그리고 가족의 생물학적 재생산(biological reproduction), 쾌적한 문화와 여가를 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용도로 발전했다. 따라서 주택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적 복합체가 된다.

주택은 야생동물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추위와 더위를 막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해 가족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한편, 경제활동의 결과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생산, 가공, 저장 등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은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적인 화장실과 식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주택은 찾아오는 손님을 맞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사교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농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1.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소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조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군단위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조직과 기능, 그리고 인력과 장비 등이 모두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위생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WHO는 안전하지 못한 식수 사용과 위생에 부적절한 물, 위생시설 부족으로 전 세계에서 170만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망원인은 주로 전염성 열대병과 기생충질환에 감염되는 것에서 온다. 보건위생이 열악한 개발도상국가에서 매일 약 2,000명이 설사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불결한 위생으로 토양 오염에 의해서 전파되는 장내 기생충(Intestinal worms)의 침입은 그 심각성에 따라 영양실조, 저체중과 성장 지연 등을 일으킨다.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에서는 전염성질환, AIDS,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5세 미만 사망률)이 높다.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에서 HIV/AIDS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HIV/AIDS의 전파로 알려진 환자의 혈액, 정액, 질분비액뿐만 아니라 눈물, 침, 모유, 소변, 척수액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영양 결핍에 의한 임신부의 저체중아 출산은 질병의 고위험에 노출되고 신생아의 발육이 저하되어 영아사망율(5세 미만)을 증가시킨다. 농촌지역주민의 빈곤은 이들에게 빈혈을 발생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특히 모성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임신부의 출산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있어 사망이나 질병, 분만 전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신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혹은 진료소, 병원을 방문하여 산전 산후의 진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생활실천도 필요하다.

22.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한 사회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다. UNESCO(2012a)는 어떠한 개발 의제에서도 교육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크게 ① 교육은 빈곤을 경감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② 모자교육은 아동의 영양과 생존기회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③ 교육은 HIV/AIDS와 다른 질병퇴치에 도움을 주며, ④ 교육은 양성 평등을 촉진하며, ⑤ 교육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교육의 보편화라는 MDG 목표는 이러한 교육의 의의를 감안한 국제사회의 의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에 의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라는 MDG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등교육의 보편화와 성인 문해교육 등 기초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의 원인은 빈곤문제와 아동 노동력의 활용, 성차별적 시각 등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교육 분야의 개발행위는 새마을운동의 다른 잠재적 사업영역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하여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여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의 질적 측면은 교수-학습체계와 관련된 요인의 개선을 통해 학습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3. 공동체란 사람들이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 장기간 모여 살면서 삶의 목표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유기체적인 지역사회 조직으로 지역

사회(community)를 의미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정서적 유대 속에서 동일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지니게 된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조직의 의사를 결정할 사회조직과 이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회집단이 조직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구성원 전원의 총의를 결집시킬 사회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은 일종의 정치조직으로 현대 한국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총회, 전통사회에서는 대동계, 필리핀 농촌에서는 바랑가이의 주민의회, 에티오피아에서는 마을 원로회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생애주기(the passage of life)에 따라서 출산과 결혼 및 사망과 관련된 사회조직이 구성되고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관련된 각종 이익집단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이와는 달리 근대 국가로 이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수용하기 위한 비자생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마을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자생적조직과 비자생적조직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의사결정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즉, 마을 공동체의 사회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을 공동체 내에서 마을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을 공동체 성격을 유지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마을에 자조와 협동의 규범은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이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집단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